

참 고 문 헌

- 1) 김 의환, 복음과 역사,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 2) 라 보도, 김 달생, 바른신학, 서울 :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0.
- 3) 박 윤선, "칼빈주의 교회론," 신학지남, Vol. 41, No. 2, 1974.
- 6) 박 형룡, 교의신학·교회론, 서울 :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77.
- 5) 옥 한홍,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 두란노 서원, 1984.
- 6) 이 중윤 편, 한국 교회의 종교개혁, 서울 : 도서출판 엠마오, 1985.
- 7) Berkhof, Louis, 교회론, 신 복윤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1.
- 8) Boettner, L., *Roman Catholicism*, New Jersey :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83.
- 9) Buswell, J. Oliver,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 Zondervan Pub. House, 1962.
- 10) Calvin, John, 기독교 강요IV, 김 문제 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79.
- 11) Cox, Harvey, *The Secular city*, New York : The Macmillian Co., 1968.
- 12) Hoeksema, Herman, *Reformed Dogmatics*, Grand Rapids : Reformed Free Pup., 1976
- 13) Küng, Hans, *The Church*, London : Burn & Oates Ltd., 1967.
- 14) Kuiper, R. B., *The Glorious Body of Christ*, London : Banner of Truth, 1967.
- 15) Thiessen, Henry C., *Introductionary Lecture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 Co., 1949
- 16) Williams, Collin W., *The Church*, 이 계준 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사회, 1973.
- 17) Williamson, G. 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 D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64.
- 18)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 2 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81.

열왕기하1, 2 장에서의 설교 3 편

박 종 칠

1. 내가 가야할 현주소는 어디인가? : 열왕기하 1장

1. 이름도 주소도 없이 서울 김서방 찾는다든 속담도 있거니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도 바쁜 생활에서 정확한 주소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도 중요한 일이다. 나에게서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로 가서 살수 있으며 얻을까 하는 것은 날마다의 생활에서 당하는 우리의 경험이다. 내가 원하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 어느 서점으로 가며 내가 어느 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으며, 아니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날때면 어느 병원으로 갈 쯤 황급해지는 경우를 만난다. 이렇게 우리네의 일상생활에 내가 가야 할 정확한 현주소를 가져야 한다.

나는 처음에 교회에 나올때 '어느 교회로 갈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나간 경험이 있다. 그때 한 교회를 정한 중요한 동기 하나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만을 자주 나타내 주는 설교 때문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가야할 교회 주소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

도 아니요, 인기 있는 만담 이야기가 나오는 강단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합법적으로 선포되고 시행되는 그것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일반 시민 생활의 날마다에도 정확한 주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종교적 문제에도 확실하고 신임할만한 주소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정확한 주소를 가지는 것은 최후 결정적인 것으로 이 정확한 현주소를 가지고, 안가짐에 따라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이 가름되는 엄청난 귀결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2. 열왕기하 1장은 바로 이 정확한 현주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상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욱 의미를 부여해 준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행적과 함께 선지자 엘리야의 불의 사역(열왕기상 18장)을 정점으로 하여 이 엘리야 기사가 열왕기하 1장에서 그 사역의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열왕기하 2장에서는, 불말과 불병거가 격리시킨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리는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함으로써 엘리사에게 계승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열왕들의 행적 역사에 선지자의 사명의 조우는 이스라엘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로서 그에게만 가야 한다는 현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다.

3.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1장이 알려주는 현주소를 더욱 분명히 알기 위해서 앞의 열왕기상의 역사와 연결시켜야 한다.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왕 벤하닷이 여러번 북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여호와께서는 북국 이스라엘도 사랑해서 구원했다(13). 여호와의 구원함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벤하닷의 많은 군대를 격파하니 벤하닷이 도망하여 오히려 아합에게 생명구조를 애원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신정왕국의 훼손자를 살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약까지 체결하게 된 것이다(34).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을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42)고 엄중하게 선언했다. 또 열왕기상 21장에는 이스라엘 왕은 「신정왕국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전쟁을 하고, 이상 또한 커야 하겠는데, 일개 개인의 포도원에 대한 탐심때문에 나뭇을 살해하는 아합의 개인 기사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이 아합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용감하다고 칭찬하겠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참된 선지자, 이므라 아들 미가야 선지자의 충고와 진언을 멸시하고 대신 거짓 신 바알의 선지자 400명의 소리를 들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신정 왕국 북국 이스라엘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다. 참된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갔다가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된 것이다.

4. 지금까지 말한 열왕기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한 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현주소는 어디냐?’ 하는 문제다. 자기가 좋아하고 기분 좋게 맞춰주는 충고자들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여호와 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단군신전 건립난립 상에 있는 우리 대통령도 조언자들이 기분 맞추어 준다고 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듣기는 싫어도 조국의 백년대계의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은 북국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지자들(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을 보내셔서 부단히 그의 신정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목자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니”(왕상 22:17) 않도록 부단히 관심하고 있는 격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많이 경험한 일이며 이런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이 있고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마땅히 가야 할 일일 텐데 다음오는 세대는 어떠한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왕하 1:1) 이렇게 왕정 이전 단계가 언제나 위험스럽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섬겨오던 모압이 경제적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비교 3:4) 하역튼 모압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국운이 위태하게 되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유유자작하게 거

널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전쟁은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홀로 유유자작하게 거닐다가 다락난간 높은데서 떨어져 죽을 병이 든 모양이다. 사건이 이렇잖대,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대표자 왕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인생이 실패와 낭패 당한 후에 그것까지는 그렇게 되었다면 그다음 자기 과오와 역사적 생생한 교훈에 비추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의 현주소 문제가 있는 것이다.

5. 인생은 언어유희(Word-play)가 아니다. 이렇게하여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들게 되니 왕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 의사도 소용없게 느껴 졌던 모양이다. 아하시야는 실로 종교적 높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단정하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절단을 에그론으로 보내어 바알에게 자기병이 나을지 물어 보도록 한 것이다. 여호와를 유일신인 자기들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것도 이 신정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내어 주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였다. 자기 아버지인 아합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바알과의 투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몰랐겠는가? 그런데 이 병든 아하시야가 바알세불에게 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머나먼 블레셋 땅 에그론으로 갔다는 것은 그곳이 특별한 바알의 전문적 비법이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이 병든 아하시야는 내가 꼭 그곳에 가 봐야만 내가 낫겠다는 현주소를 가졌던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무골호인처럼, 아니면 안방 영감처럼 가만히 있겠는가? 그대로 놔두시겠는가? 3절에 보면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메세지가 전달된다. 구약역사에 종종 「여호와와 사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나타난다. 여호와 자신이 자기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다. 엘리야가 이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신을 찾는 그에게 죽겠다고 전달하라는 것이다. 시온의 하나님이 결단코 멸시를 당하고 있을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엄위하시다.

그래서 도중에 이 사절단이 왕께 돌아와서 한 사람을 만난일을 보

고하니 왕은 즉시 이 낮은 사람이 엘리야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잡아 오도록 군대를 파견한 것이다. 이들 50부장 휘하의 군사들이 엘리야가 있는 높은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왕의 명령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무엇인가, 왕의 명령이다. 내려오라(레다!)” 하고 방자하게 고함을 질렀다. 그러므로 우리한역 “내려오라 하였나이다”는 고쳐야 한다.

이에 엘리야가 응수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사를찌로라”(왕하 1:10)고 하였다.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말로 ‘이-쉬’ 이고 불은 ‘에이쉬’로 발음된다. 그러니 발음상으로 비슷하게 들리는데 특히 엘리야가 산 꼭대기 먼 거리에 앉아서 피차 들을 때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말이 떨어지자 그대로 되었다. “너의 말따라 내려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쉬’ 이라면 지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에이쉬’가 내려와서 내가 의미한대로 되어라”는 뜻이다. 그대로 된 것 밖에 없다. 하늘의 심판의 불이 내려온 것이다. ‘이-쉬’가 ‘에이쉬’로 내려와서 죽음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언어적 유희를 당해가면서 지나가는 장난하는 말로 지나칠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더, 엘리야의 역사의 극치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죄짓는 그 영혼은 그대로 그 죄의 값으로 망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꼭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 심판이 아니다. 로마서에 보면 “정육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였는데 정육에 불타는 그 죄를 막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무서운 심판이다.

6. 인생의 완고성이 얼마나 강한가!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가서는 안되는 주소를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거듭 거듭 알려 주건만 오십부장과 그 군대를 세번이나 보내었다. 오십부장과 그 군인들이 하늘의 불로 타 죽는 것이 두번 꼭 같이 나타난다(왕하 1:9, 10, 1:11, 12).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으로 쓸데없이 엮어 붙이니가 이렇게 두번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기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 아하시야왕이

얼마나 한사코 가서는 안되는 주소를 밟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려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내려 사자들을 만나고 (3) 아하시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확인시켰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바알세불에게 안가고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알려주니 왕은 즉시 엘리야인줄 알아 차렸다. 그래도 오십 부장과 그 군대를 보내니 두번 다 불에 타 죽었다. 그렇다면 아하시야 왕이 분명코 갈멜산에서 바알신들과 싸워서 불로 응답한 엘리야인줄 아는데 이렇게 거듭 거듭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과거에 성령의 불로서 개혁했던 것을 인간의 완악성으로 퇴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죄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본질이다. 10번째야 놓아주는 바르며, 7번까지 잠기기를 싫어하는 인생이다.

7. 이런 인생의 완고에는 징벌이 온다.

왕하 7:16~17절 말씀은 이 내용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한번 두번 사자들을 통해 간접으로 그의 뜻을 전했지만 이제는 직접 엘리야가 병든 왕에게 나아갔다.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직고(直告)해 주라고 했던 것이다. 선지자는 어디까지나 여호와의 “하셨다 하라.” 처음에도 나중에도 일관하는 대언자(代言者)이다.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찌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고 한 엘리야의 말대로 그는 전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것도 왕위를 계승하는 자식 없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아하시야 왕조는 끝장이 나고 아하시야 형제 여호람이 왕위를 이은 것이다.

이로써 엘리야로 통해 말씀된 바는 확증되고 엘리야의 그 수난 많았던 사역은 확립되고 왕은 죽은 것이다. 일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잘못되므로 백성들이 오도되고 백성들이 역시 병들게 되므로 선지자는 고고히 그 모든 수난을 무릎쓰고 외쳤던 것이다. 오로지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참 목자왕이시고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니 그를 찾고 그에게 두드리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만이 우리가 가야할 유일한 현 주소임을 엘리야는 외쳤다. 그의 신앙투쟁이 승리하였기에 회리바람 타고 승천한 것이다.

8. 내가 가야할 현 주소는 어디인가?

아합이 죽고 갈 자가 갔으면 평화가 올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권이 전이(傳移)하는 과정에 위험이 오는 것이다. 나라 지도자가 병들었다. 그러자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이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다 (왕하 1:1~2). 지금껏 모압의 조공으로 경제적인 운영이 되어왔는데 이제 그들이 배반되므로 경제적 위기도 온 것이다.

단군신전 건립으로 우상화되어 가는 망국의 징조속에서, 오늘의 온갖 정치위기에서, 오늘의 우리가 가야할 바른 종교적 주소는 어디인가? 이 세상의 여러가지 소리, 이 세상의 온갖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 속에 내가 가야할 주소는 어디인가?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 참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내가 가야할 유일한 주소인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주소다. 아멘.

2. 불(火)과 아버지(에이쉬와 이-쉬): 열왕기하 2장 ①

패역한 아합의 통치에 맞선 엘리야의 사역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 된다고 도전하였다. 그는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 주었다. 무서운 아합의 핍박, 생명을 노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됨을 보여 주었다. 아합이 죽자 그의 대를 이은 아하시야 왕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 하였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므로 인생이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가르쳤던 것이다. (열왕기하 1장) 이제 엘리야의 신앙 투쟁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야를 갈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갔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불의 선지자를 그의 계승자 엘리야는 “내 아버지”라고 외쳤다. 그러므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는 불(火)과 아버지 관계에 있게 된다.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였던 한 세대의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의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

것이 열왕기하 2장의 중요한 모티브 (motive) 가 된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를 우선 말한다면 엘리야는 심판의 설교를 했다고 하면 엘리사는 구원의 설교를 했다고 하겠다. 엘리야는 도전적이고도 열정적으로 또 단도직입적으로 오므리의 왕조에게 저항하였다고 하면 엘리사는 생명을 주시고 갱생시키는 여호와의 기적들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엘리야가 딱딱한 법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고 하면 엘리사는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적인 정신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야는 인상적이고 불꽃튀기는 선지적 출현이라고 하면 엘리사는 비교적 세련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한 선지자에게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선지자에게 다른 면이 있어 다같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역사의 진전에 필요하고도 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선지자는 모두 타락한 시대상에 대하여 한결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들려졌다. 특히 엘리사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는 기적들을 선지생도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미에서 이방인의 수념역인의 가족이나 또 나아만에게 행하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사역하였던 그의 예언운동은 엘리야에게서 받았던 「유산」에 속했던 것이었다. 엘리야의 승천할 때에 엘리사는 그 선지운동의 계승자로서 송두리채 이어받았던 것이었다. (열왕기하 2:9) 그러므로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역은 엘리사로 인해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엘리사에게 나오는 사역 운동의 결과를 보고 엘리야 사역의 의미를 보면 더욱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다른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 시작은 끝에서 보여져야 하고 그렇게 볼 때에 더욱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베들레헴으로 지향하고 있는 구원 역사의 연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구원사는 여기 저기서 혹은 이것 저것을 보아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전을 통하여 순수하게 나아가는 경륜인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있어 그 사역의 차이는 있어도 이 둘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불과 아버지의 관계인 것이다.

우선 열왕기하 1장에서 보았듯이 인생은 「언어유희」처럼 완악한 반역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을 보았다. 유희처럼 생각했다가는 무서운 불의 심판 사역이 나타남을 우리는 보았다. 「이—쉬」(사람)가 「에이쉬」(불)가 되어 내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람(이쉬)이면 불(에이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면 「불로 응답하는 구나」 하는 역사적인 체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를 거듭 거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왕하 4:7, 9, 16, 21, 22, 25, 27, 30, 42, 5:8, 14, 15, 20, 6:6, 9, 11, 15, 7:2, 17, 18, 19, 8:2, 4, 7, 8).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둘이 함께 걷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 말들」이 나타나서 둘을 갈라놓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데려갈때 엘리사는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불로 사역하였던 엘리야를 두고 「아버지」라고 고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열심히 걷고 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엘리사를 떼어놓는 심정으로 엘리야를 견게하고, 엘리사는 한사코 따라 부치는 걸음이었다. 두사람이 하던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에 일어난 사건들 불로 응답한 사건 아니면, 엘리사가 엘리야에 관계될려면 쳐다 보아야 한다는 (왕하 2:10)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이야기나 걸음은 순식간에 중단되고 순간적으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일종의 토네도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다. 엘리사가 「쳐다 보았다」(왕하 2:12)고 하지만 눈과 귀를 짓눌러 버리는 그런 하늘의 강력한 바람과 힘에 인생이 무엇을 본질적으로 볼 수 있었겠는가? 단지 엘리야가 쳐다보아야 한다고 했으니 그 사건의 의미나 성격을 알아차린 사람이 되어 엘리야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감아 돌로 찢고」(2:14)라고 하였으니 순식간에 생긴 강력한 하늘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2:12)라고 소리치게 된 것이다.

그럼 왜 엘리야가 그런 외침 가운데서 군사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 외침은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할 때의 외침이라고도 하겠다. 그 자신은 육적으로 보는 현상에서 의미를 찾기 보다는 떠나버린 엘리야가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신 그 세계 때문에 원통히 생각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야전군대의 대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왔던 엘리야 그분은 이스라엘의 탱크였으며, 기갑사단이었다. 최악 세상에 가차 없이 야전 사령관으로 적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온 야전 사령관이었다. 여러 왕들이나 우상 종교등 온갖 세력들의 도전에서 선지적 위치와 자세와 하나님의 종교와 말씀을 과감히 지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승자 엘리사가 동일한 세대를 물려 받았으니 같은 영적인 투쟁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전쟁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 불과 아버지의 의미를 몇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1.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버지”로 인정하였고 또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 구약에서 장자의 몫은 두배가 된다. 그는 성령을 감절이나 받기를 원하였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소원대로 이루어 진다고 하니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의 약속따라 장자권을 받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이는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 운동의 유산, 선지자의 영감과 지혜를 감절이나 받기를 바란 것이다.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 왕도, 세력도, 온갖 어려움도 두려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하여 달라는 선지자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선지자가 되게 해 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타락된 시대에 그 최악을 보고 심판을 외치고 이스라엘을 생명 세계로 오도록 호소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다.

2. 엘리사의 외침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다.

이는 실로 군인이 각개 전투에서 적진을 돌진할때 외치는 외침인 것

이다. 자기에게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외침으로 전진하면서 명령의 수행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갑옷을 입지 아니하였어도 갑옷을 입은 자처럼 사랑하느니라’ (왕상 20:11) 외침이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같이 하시던 분. 그 하나님께 직고(直告)하는 외침이다.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에 종종 외치던 그 외침을 엘리사는 외치는 것이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시 72:2).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전쟁시국에 이 외침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려는 강한 외침인 것이다. 이는 엘리야는 갓어도 악한 세대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요 엘리야가졌던 신앙만을 주옵소서라는 것이다. 이 외침(차아-크)은 엘리사 자신의 다음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왕하 4:1, 6:5, 6:26, 8:5, 8:7.)

3. 이 외침은 신앙에서 나온 외침이다.

절망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가운데서 나온 소리이다. 계승자가 전임자의 신앙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외침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공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떨어뜨리고 간 길옷을 갖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치시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첫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느냐 하더니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2:14).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2:9) 스스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 보여 아버지의 아들됨과 계승자됨을 공포한 것이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장, 이스라엘의 병거며 마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는 전쟁터의 첫 장애물을 거뜬히 치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선지생들은 그가 엘리야의 계승자 됨을 인정하고 절하였던 것이다. (2:15).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 운동의 정신과 능력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과연 그가 맡은 선지자의 아들됨이 그가 남은 사역 동안에 전 이스라엘에 인정 되었으니 그의 임종시에 이스라엘 요아스가 그에게 나아

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라고 한 것이다. 과연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방패와 힘이 되었는지는 왕하 6 : 8-23만 보아도 능히 알만하다. 원수의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이라도 미리 알아 이스라엘이 예방을 하게 하였으니 오늘날 인공위성의 현대 첩보 작전이라도 이렇게까지 철저 하였는가? 비록 원수가 쳐들어와도 그 많은 군대를 다 봉사하게 하여 포로로 잡아와 죽이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능력과 방패는 원수가 가히 감당치 못했다. 이런 엘리사에게 요아스 왕이 한 말의 형편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할 때 와는 같지 않았다. 요아스는 “보통” 임종시 (이 때 엘리사의 나이 약 80세 정도였다) 에 나타나서 그것도 엘리사처럼 위급할 때 외친 것이 아니라 (차아-크) 그저 말한 것일 뿐이다. (아말 왕하 13 : 14) 환경이나 요아스의 태도가 전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르짖던 때와는 다르지만 한가지 뚜렷한 사실은 엘리사가 원한 장자권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사명을 이룰 힘을 주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지 말씀으로 계승되게 하고 보호하였던 것이니, 이 엘리사가 죽어 떠날 것을 생각하니 죄를 짓고 반역하는 요아스왕까지도 슬픔 가운데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한 것이다.

4. 불의 사역의 이중적인 면

엘리야와 엘리사로 계승되는 불의 사역은 하나님백성에게 구원을 주는 운동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주는 운동이다. 이렇게 세대를 통해 구원운동의 통일 의미를 주고 있다. 바알 제단을 맞서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대 신앙 도전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 됨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다. 또한 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엘리야 생의 말기에 다시 한 번 불로 나타나더니 (왕하 1장) 그의 종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들도 하늘로 데려 가셨다. 또 한 그의 계승자 엘리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같은 하늘의 권세로 이스라엘의 신앙투쟁에 가담케하여 봉사를 시키셨다. 그래서 그는 과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던 것이다. 주님은 이 지상의 죄를

태우고 속량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불이 떨어졌으면 (평화가 아니라) 얼마나 좋겠느냐고 탄식하였다 (눅 12 : 49) 여호와께서 사령탑에서 불을 이 땅 위에 내리셔서 불같이 사역하는 자 엘리사처럼 그의 선지사역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3. 벤엘의 조롱이 징벌을 받다 열왕기하 2 : 23~25

복음을 싫어하는 괴악한 세상에 대해 불꽃 튀기는 심정을 물려받은 엘리사; 엘리야가 떠난 그의 고독한 사역길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본문은 무서운 사건으로 등장한다. 벤엘 도시의 어린 아이들 42명을 암콰 두 마리가 물어 찢어 죽였던 사건이 일어났다. 실로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었다. 왜 그럴까? 그 42명의 어린 것들이 죽었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렵다기 보다는 사실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소한 데 있었다.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죄악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죄인에게 회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봉사할 것을 외쳤다. 그들은 이 엘리야의 계승자인 엘리사를 조소하다가 이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다.

무슨 어린 것들이 큰 죄가 있다고 할런지 모르나 이 어린것들의 입에서 나온 조소가 바로 그 당시 벤엘 백성의 마음이며 조소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위엄과 자기 종을 시켜 복음을 수호하며 말씀의 진전에 어떤 방해를 용납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무서운 사건 속에서 구원의 복음 진전에 하나님은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서 믿도록하며 심판하는 것이다. 엘리야의 계승자를 통해서 그 죄악스런 벤엘의 저주에 맞서 구원의 교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1. 엘리야를 이어받아 첫 사역에 전진하는 엘리사에게 일단의 어린것들이 ‘대머리아 올라가라, 대머리아 올라가라’ 로 조롱을 한 것이다. 정말 엘리사가 대머리 였는지는 그의 남은 생애를 봐서도 잘 알수는

없다. 특히 동양 사람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듯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머리에 무엇을 쓰는 형편에서 왜 이런 말이 아이들에게서 나왔는지는 잘 짐작이 가지는 않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거듭거듭 의도적으로 조소, 조롱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어린 것들이 한 집단을 이루어 이제 출발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올라가 보라. 더 올라가 보라’ 고 하는 말은 엘리사에게 하는 일종의 도전하는 말이다.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보라는 말이니 아닌게 아니라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뱀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뱀엘은 여리고에서 높은 지역이어서 뱀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어린것들이 뱀엘에서 나와서 외쳐되기 시작한 것이다.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뱀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와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고 엘리사를 그의 계승자로 선언한 것이다. 이제 엘리사는 다시 온 길을 되돌아서 여리고로 돌아와서는 그다음 뱀엘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뱀엘 사람들도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도 보아서 잘 알고 있는 터인데 이제는 엘리사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게된 것이다.

이에 조롱하는 도전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엘리야 없이 외롭게 뱀엘로 터벅 터벅 오는 것같이 보여졌는지도 모르겠다. 이곳 뱀엘에는 선지생도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가는 것도 보았고 소위 선지생도들이 듣는 대로는 혹은 짐작가는 분위기로 보아서는 엘리야가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 혹은 정확히는 몰라도 경건의 모양과 양식은 알고 있는 것이다. (왕하 2:31) 바로 이런 형편에 참된 선지운동의 도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했던 것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뱀엘이 선지생도들이 있는 도시인가 하면 또한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도시이기도 하다. 일찌기 여로보암왕이 뱀엘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마음대로 만들어 유다의 예루살렘의 정식 제단에 맞서고 있는 인간 자의적 제단이 있는 도시였던 것이다. 시온의 성전에 적수가 되어 인간 자의적 숭배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왕상 12:29)

이런 형편에 뱀엘의 어린 것들이 무리를 지어 엘리사를 조소하는 것은 비록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뱀엘의 마음을 내보이는 것일 뿐이다. 저들의 부모의 마음들을 내보이는 것이며 뱀엘 사회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저들 집에서 배운대로 말하는 것이 어린것들이다. 이 젊은 선지자의 행로에서 선지자는 제멋대로 예배하는 사회 무리들의 도전의 의미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들이 내뱀은 조롱과 도전 ‘올라가라 대머리야 더 올라가서 우리 성안으로 들어오라’ 고 하는 것은 분명코 예사로 넘겨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느냐?’ 엘리야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사의 하나님도 됨을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므로써 체험하게 한 것이다 (왕하 2:14). 그가 돌아오는 여리고 성은 지난 성경의 역사로서는 죽음의 도시이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서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수 6:26) 하였더니 아합시대에 “뱀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상 16:34)로 증명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에서 여리고는 저주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었다.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물을 정결케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엘리사가 이 여리고 성을 위해 할 수 있었던 봉사의 일은 여리고 성의 물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 그 성의 물 속에 사망이 역사하므로서 모든 토산물이 죽어가니 하나님은 엘리사의 봉사를 통해 물을 정결케 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가 섬기는 복음과 그 복음의 사역은 생명을 주는 운동인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왕하 2:19~22). 엘리사는 그가 참 순수한 복음운동, 생명운동의 사역자임을 이런 일을 통하여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뱀엘의 도시인들은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 운동에 헌신하는 선지자를 비방하고 나섰으므로

이는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고 하겠다. 엘리사가 섬기는 구원의 복음, 구속운동, 여리고 성에서 보여준 구원운동을 그들은 저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의적(自意的) 예배가 참된 예배를 조롱하는데서 온 것이다.

2. 우리가 주님을 저버릴 때 주님도 저들을 버린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는 구원의 복음과 메시아 왕국을 마다하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서 주께서도 저들을 저버리는 것이다. 비록 사망으로 역사하는 곳 여리고 일찌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구원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만난 벤엘일지라도(지나날 야곱의 경우) 주님을 버리면 주님 역시 저를 버린다는 것이다.

사실 엘리사는 처음 무심코 지나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조롱에 가는 길을 멈추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발하였다. 그때 바로 숲에서 두 마리의 암퇘지가 나와서 그들을 물어뜯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맞서는 일이 아니라 그 한 말에 대하여 말로써 맞서는 것이다. 참 무서운 것이 말이 아닌가? 축복이든 저주의 말이든, 축복이든 조롱이든 말이란 것이 우리들의 사회생활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들이 그들 나름의 생각하는 것이 있어 '대머리아 올라가라'고 외쳤는데 사망으로 역사하는 병거가 나온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벤엘의 사회가 선지자에게 선전 포고를 하니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발한 것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이 일을 하셨다. 사망으로 역사하던 곳 여리고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가 되었지만 선지자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벤엘은 패망의 도시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거역하겠는가? 하나님이 거역하시는데 인간이 어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벤엘 도시에서 죽었던 42명은 대단히 많은 수이다. 요즈음 42명이 죽었다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당시로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참으로 인상깊게 느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철저하게 그 징벌이 나타난다. 과거 한국 교회가 해방을 주

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커녕 분쟁만 일삼다가 마침내 거룩한 총회 석상에서 교권쟁탈의 난투극이 벌어지며 경찰이 강단에 올라와서 싸움을 말리는 소동이 있었다. 그러자 그해 성탄절 축하행사때 그 교회에서 40여명의 어린 것들이 죽는 심판이 있었다. 실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과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 종말의 시대를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직도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3. 벤엘의 도시민들의 반응을 말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암퇘지 두마리가 42명의 어린 것들을 물어 죽였는데 대하여 벤엘의 도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 주었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선지자 엘리사도 그 심판을 자신에 맞게 해석하여 대응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실에 대해 성경은 전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것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며 그저 말씀이니 순종이고, 거역하면 심판이라는 급한 진전 뿐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문제요 구원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가야할 참선지 운동의 프로그램 진전 뿐이라는 것이다. 벤엘인들은 싸움에 진 것이고 선지자를 조소한 입은 다물어졌는데 선지자 자신이 여기에 헐썩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직 선지자는 자기의 길을 갈 뿐인 것이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 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선지자 엘리사는 미련이나 시원함이나 한탄스러움도 없이 그곳을 떠나서 자기 여행 길을 가는 것이다. 거기서 갈멜산으로 갔다고 하였으니 이 곳은 엘리야와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과 투쟁한 곳이며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에 분명한 결합이 이루어진 곳이다. 여호와나 바알이나 하는 갈등의 현장에서 신앙의 격투가 벌어졌을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했던 곳이다. 엘리사는 왜 머나먼 갈멜산으로 갔을까? 바로 자기 전임자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해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엘리사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지자적 봉사를 하

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거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자신의 선지운동의 출발점과 기초를 분명히 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엘리사는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곳에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왕조(王潮)가 있어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왕국의 한복판에서 사역을 해야했기 때문이었다. 자기 여행 길의 목표는 갈멜산을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의 바쁘고 바쁜 선지운동의 여정, 사마리아의 선교운동은 갈멜산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을 전제할 때만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며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여호와를 위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는 결단을 내리라는 엘리야의 도전이 바로 엘리사도 부여받은 사명이며 가르쳐야할 의무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사역지로 삼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구원의 복음,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였다. 바알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요 금송아지 형상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요 인간의 자의적 숭배형태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요 오로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복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여호와만 섬기고, 그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마리아로 온 것이다.

주 여호와와 벨엘 어른들의 도전의 표현이며 어린 것들의 조롱을 이기고 이제는 여리고에서 보다 벨엘에서 보다 갈멜산에서 보다 좀더 가까이 벨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골고다를 거쳐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세상 끝까지 부어 주신다.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래 된지도 벌써 100주년이 되었지만 오늘날 온갖 형태의 조소와 조롱과 복음에 대한 도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사용된 두 암곰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도전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나 여러 믿음의 용장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라 보았던 것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갖 조소에 대해 싸우고 이길 무기인 것이다. (조교수·역사신학)